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

책임 연구자: 서 미

공동 연구자: 정 익 중

이 태 영

김 지 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99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인 쇄 : 2017년 12월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인 : 장정은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5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가꿈복지직업재활시설

비매품

ISBN 978-89-8234-692-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 책임
연구자: 서미 ; 공동연구자: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 부
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692-7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복지[靑少年福祉]

338.5-KDC6

362.7-DDC23

CIP2017034021

간행사

최근 청년 실업, 니트족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기청소년 시기는 심리적, 경제적 독립에 관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취업좌절로 인한 부정적 미래관 및 사회적 편견, 자아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후기청소년의 자기이해, 진로설계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 보다는 주로 청년 실업 및 고용에 주로 초점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청소년의 40%를 차지하는 후기청소년이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이용하는 비율은 5%조차 넘지 않는다는 점은,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타당성 있는 내용 구성을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대학상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병영생활전문관 등)의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후기청소년 유형별(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로 차별화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애써주신 본원의 서미 부장님, 이태영 상담원, 김지혜 상담원, 설문,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주신 전국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학계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모형이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장정은 **서** **정**은

초 록

최근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인해 성인으로 자립하는 연령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이전으로 늦추어짐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 간 중간시기인 후기청소년기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후기 청소년기는 미성년에서 성인기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으로써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업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후기청소년들은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성인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취업좌절로 인한 부정적 미래관 및 사회적 편견, 자아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 보다는 주로 청년실업 및 고용에 주로 초점화 되어 있다. 전체 청소년의 40%를 차지하는 후기청소년이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이용율의 5%조차 넘지 않는다는 점은, 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책 방안 및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대학상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병영생활전문관 등)의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1차 자문회의, 청소년 포럼을 통해 유관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실무자, 최종수혜자 등)의 의견을 통해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최종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모형의 주요 단계는 예방, 발굴, 지원(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사후관리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단계는 후기청소년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위해 초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위기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다. 발굴단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후기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단계로서, CYS-Net 활

용,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를 제공하는 3단계 ‘나를 알Go’ (Assessment 단계), ‘적응하Go’ (Adjustment 단계), ‘개발하Go’ (Self-Empowerment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나를 알Go’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적 적응 수준 등 평가를 하고, ‘적응하Go’ 단계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상담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Go’ 단계에서는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 이후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은 후기청소년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제안한다. 즉 후기청소년 유형별(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로 차별화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초기, 중기청소년에 특화된 인력이므로 이들이 바로 후기청소년을 담당하도록 하기보다 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분석과 연수, 교육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후기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정책수혜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나 청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상담센터, 군대의 병영생활전문관, 고용지원센터 등 연계자나 연계기관을 통한 의뢰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후기청소년 지원,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에 초점화 된 지원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및 행복을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움으로써 후기청소년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의 역할, 서비스전달체계, 인적 구성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체계적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 전문가 감수 등 모형개발과정에 다양한 현장자료를 참조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성 높은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후기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단계 및 유형별 지원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계별 및 유형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담복지센터는 물론 관련 기관에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특성 4
 - 가. 후기청소년의 정의 4
 - 나. 후기청소년기 특성 5
 - 다. 후기청소년 현황 및 문제 7
2. 후기청소년의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1
 - 가. 후기청소년 부처별 지원 정책 11
 - 나. 후기청소년 지원 기관 및 현황 20
 - 다. 후기청소년 국내 정책현황 요약 및 시사점 25
 - 라. 후기청소년 해외정책 27
 - 마. 후기청소년 해외정책 현황 요약 및 시사점 30
3.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31
 - 가. 후기청소년 심리적 지원 필요성 31
 - 나. 후기청소년 유형별 심리적 지원 방안 32

III. 연구 방법 | 34

IV.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 3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36
2.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42
3. 의견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7
4. 전문가 감수, 청소년 포럼 결과 및 모형 수정 49

V.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 52

1.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2

가.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개요	52
나.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5
다.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6
라. 대학재학생: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8
마. 군장병: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60
2.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모형 전달체계	62
3.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요약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9

부록 73

Abstract 90

표목차 |

표 1. 후기청소년 유형별 문제 및 지원방안	10
표 2. 자기계발 프로그램 예시	22
표 3. 두드림 프로그램 기본 구성 내용	23
표 4. 두드림 프로그램 심화과정 구성 내용	23
표 5. 청소년 쉼터의 종류	24
표 6.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36
표 7.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37
표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38
표 9.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42
표 10.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43
표 11.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44
표 12. 후기청소년 유형별 심리·정서적 특징	48

그림목차 |

그림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13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흐름도	20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22
그림 4.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개발 절차	34
그림 5.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53
그림 6.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5
그림 7.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	57
그림 8. 대학재학생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 그램	59
그림 9. 군장병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60
그림 10.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전달체계	64
그림 11.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운영주체별 역할	64

I. 서론

최근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성인기의 시작이 미루어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처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성인으로 자립하는 연령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이전으로 늦추어짐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 간 중간시기인 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후기청소년기는 성인이나 청소년과는 다른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Erikson, 1950, 1968), 특히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후기청소년기는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Arnett, 2000, 2015).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준비도 부족치 않다.

후기청소년기의 정의는 학문 영역이나 정책내용, 국가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공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을 초기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본법의 지원대상인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존 청소년정책이 주로 13세에서 18세 연령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017). 기존 청소년정책이 주로 13세에서 18세 연령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서는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 청소년기는 미성년에서 성인기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으로써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업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전이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발달단계적 과업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 차원에서의 적응과 대처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들은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

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정익중 외, 2017). 더욱이 우리나라 후기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 흥미, 적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 입학해서 비로소 진로문제로 인한 좌절과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후기청소년기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아정체성 및 역할에 대해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기이다(Settersten & Ray, 2010). 이들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 중간에 낀 느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탐색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한다(Arnett, 2015).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기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기에 진입하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성인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유예기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청년 실업, 고용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후기청소년은 자아 및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 부적응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극심한 취업 경쟁 아래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고 취업기회와 가능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기도 하며,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이라는 목표 외에 다른 모든 것들과 단절되는 삶을 선택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88만원 세대’,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삼포 세대’, ‘N포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후기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여 생계형 아르바이트, 공부,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은 우울감 및 자살충동을 호소하고(YTN, 2016. 09. 20),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스러워하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취업준비생들은 좌절감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일상을 견뎌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사실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청년실업 및 고용에 주로 초점화되어 있다(김기현, 2017). 물론 이들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체 청소년의 40%를 차지하는 후기청소년이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이용율의 5%조차 넘지 않는다는 점은,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책 방안 및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후기청소년은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니트족은 다른 집단 유형에 비해 낮은 자존감, 부정적 미래관,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 자기주장, 자기조절력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이나 불편감이 높으며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으며(YTN, 2016. 09. 20),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각각 12.%, 20.5%의 수치를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또 한편으로, 대학생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교육부, 2016)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인의 경우 군대의 특성상 고위험 사고(총기난사, 자살, 탈영, 폭행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성을 보인다.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따라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각 유형의 특성 및 문제에 따라서 심리·정서적인 지원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유형별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특성

가. 후기청소년의 정의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단계와 구분은 상이하하며, 특히 20세기 중반이후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청소년이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기의 시작은 미뤄지고, 청소년기는 연장되고 분화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후기청소년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이라 명명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청(법률, 규범, 가치, 문화)과 당사자들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청 등은 청소년기, 성인기와 구별된다(Erikson, 1950, 1968). 후기청소년 개념의 도입은 현대사회의 성장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며, 과거에는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자립연령이 20대 후반 혹은 30대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 연장과 진로 및 직업 획득, 결혼 연령대가 지연됨에 따라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후기청소년의 개념이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전상진, 정주훈, 2006).

후기청소년을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학문 영역이나 정책 내용, 국가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Keniston(1968)이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후, 일반적으로 후기청소년기는 19세에서 25세를 지칭한다(전상진, 정주훈, 2006; Hurrelmann, 2006). 일부 연구자들은 후기청소년을 20대 대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하며, 현재의 20대들은 단지 투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이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오찬호, 2010). Sullivan은 심리적 발달에 따라 유아기부터 후기청소년기까지의 상호작용 욕구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중 후기청소년기는 17, 18세부터 20대로 구분하였으며, 이 시기는 초기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시기로 성인사회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았다(조아미, 2007).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본 법령을 토대로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공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을 초기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정책이 주로 13세에서 18세 연령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분화되고 연장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19세에서 24세 범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후기청소년으로 보고 이 연령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나. 후기청소년기 특성

성인기와 청소년기에 속하지 못한 후기청소년기의 특징을 Arnett(2000, 2015)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는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s)의 시기이다. 후기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다양한 삶의 옵션들을, 특히 사랑과 일에 있어서 검토해본다. 사실 이 시기는 사랑, 일, 세계관의 측면에서 정체성을 탐색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하다. 둘째, 후기청소년기는 사랑, 일, 거주 등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Instability)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거주가 자주 이동될 가능성 많다. 대학원 진학,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한 이동이 있기에 불안정하게 느끼게 된다. 셋째, 자기중심성(Self-Focus)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때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시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들처럼 무책임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행동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성인이 갖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없고 청소년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후기청소년들은 대학에 가는 것,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수업을 듣는 것 등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넷째, 가능성(Possibilities/Optimism)이 많은 시기이다. 즉 희망이 많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지는 시기로서, 미래에 대해 많은 꿈을 가지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아직 현실생활에서 자신의 꿈을 시도해본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래를 볼 때 만족한 직업, 사랑스런 결혼, 행복한 아동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들은 중간 낀 느낌(Feeling In-Between)을 갖는다.

미국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당신은 성인이라고 느끼는 가?’ 라는 질문에 ‘예’ 와 ‘아니오’ 로 응답한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는 모호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모색기의 상당수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완전한 성인으로도 인지하지 않는다. 사실 성인기는 이러한 중간에 낀 느낌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결정을 독립적하며, 재정적으로 독립될 때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Arnett, 2015).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Arnett(2015)은 후기청소년기를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후기청소년들은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기 이행으로의 필수 단계인 자아정체성의 대한 고민 등은 사회경제적인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이고 제도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경험하게 되는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과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의 70%이상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에만 입학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들은 정작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현안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후기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현재 청년고용률은 2010년 40.3%를 기록하여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은 한국사회의 주거, 실업률이나 부채,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 사회 경제적 구조의 영양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세대 간, 세대내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성인으로 갖는 의무와 역할의 유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오찬호, 2010; 이광호, 2003) 후기청소년들의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 부정적 문제 심각해지고 있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고용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관련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 정책이 청년고용이나 취업에 집

중되어 있고 이들의 심리·정서적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은 후기청소년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 이라고 밝히며 자기탐색 및 이해를 위한 진로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취업자 및 미취업상태가 경과될수록 자존감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이 후기청소년기의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조절하여 성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다. 후기청소년 현황 및 문제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 인 청소년은 전체 9,217,231명의 청소년 중에서 44% 해당하는 4,051,120명으로 조사되었으며(통계청, 2016), 청소년의 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후기청소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 ~ 24세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변화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은 초중기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전중기청소년의 상담이용비율은 95.3%이며 후기청소년의 상담이용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이처럼 후기청소년이 청소년 정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바, 정책개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후기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청소년 집단은 연령보다는 현재 상태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취업자와 미취업자, 구직활동자와 비활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소득과 같은 계층의 기준, 국·공립대학, 전문대학 등의 대학의 유형, 서울 등 지역의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후기청소년을 둘러싼 이슈에 따라 다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따라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있어서 후기청소년 집단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슈별 자립지원 등 정책지원을 함에 있어 집단 내 이질성과 세부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유예생과 구직 비활동자와 구직활

동자를 포함하는 졸업미취업자는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공통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니트족과 같은 구직비활동자의 경우, 진로성숙도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의 경우 자존감, 긍정미래관, 진로성숙도,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을 나타냈다. 더불어, 졸업미취업자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으로, 초·중·고·대학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자기탐색 기회의 부족과 자기탐색 시간의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도 본 집단을 하나의 유형으로 하여 모형개발 및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2015년 전체 재적학생 수는 3,274,593명으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교육부, 2016), 2015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특히 전문대학교 및 지방사립대 등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또한,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 1, 2학년 학생 중 반수, 편입, 대학 중퇴 시도, 휴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등록금 충당 및 학자금 대출 상황을 위해 학업에 높은 수준으로 방해가 되는 정도의 장시간 근로 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학이라는 변화에 신규학기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변화가 더해짐에 따라 다른 학년에 비해 혼란과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박정희, 김홍석, 2009)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국내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문제를 호소하였다. 전문대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생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 등으로 열등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민, 2013). 군복학생의 경우, 복학 이후 소외감 및 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며 변화된 교과과정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며(노혜림 외, 2015), 군대 내에서의 폭력이나 사고 목격과 같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복학 이후 우울, 자살사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Hourani, Williams, & Kress, 2006).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식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에 따르면,

대학생 중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정도이며,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신입생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유예자의 경우 외부환경 요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음에 따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경우 성인,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며 혼란을 겪고 있으며, 대학입학 후 목표상실로 인해 생애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학생상담센터는 2016년 전체 대학 432개 중 43.9%에 해당하는 190개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교육통계연보, 2016) 아직 대학생의 심리·정서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EBS, 2016).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1만 5천 명 정도 고졸 비진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가 비진학 및 미취업상태이며, 고졸 비진학자중 취업자가(68.7%), 진학·취업준비자(12.9%), 니트족(12.3%), 구직자(6.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3). 이들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 계획이 없었던 경우 니트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니트족과 취업준비자 집단이 가장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의식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안선영, 장원섭, 2009), 그중에서도 니트족의 경우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후기청소년 중 취약위기계층의 경우, 가족적 맥락과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취약위기계층 후기청소년의 경우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의 분재,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매우 취약하고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집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갖게 하며, 부정적 자기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위기취약 후기청소년의 경우,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지원으로 기회를 보장받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물질적 지원 외에도 그들의 긍정적 자기정체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적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표 1. 후기청소년 유형별 문제 및 지원방안¹⁾

구 분	특 성	지원방안
무업청소년 (니트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 -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및 자존감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유예생,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 -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 -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 졸업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 및 복지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과 대처방법이 미흡 -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필요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 직무몰입도에 있어 낮은 수준 - 근로조건 불만족, 고용계약만료 외,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 부재'의 사유가 이직 및 퇴사에 가장 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및 노동권 인지 수준 향상 교육 제공 - 진로 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
대학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대학 1-2학년생 반수, 편입, 대학중퇴 시도, 휴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및 개발 집중 지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3, 2015a)

1) <표 1> 내용 중 무업청소년, 취업준비생, 취업자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2013)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2015)에서, 대학재학생 내용은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2012)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2. 후기청소년의 지원 현황 및 시사점

후기청소년의 경우 원만한 사회진출 및 사회적응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욕구의 충족을 포함하며, 여러 영역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신혜령, 2001). 후기청소년의 원만한 사회진출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박은선, 2004; 신혜령, 2011; DHHS, 2001; Nollan, 2000), 지원 영역은 크게 신체, 심리·정서적 건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의 유지 및 지속적인 학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 독립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사회성 기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배주미 외, 2010). 이렇듯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측면 및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국내외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 후기청소년 부처별 지원 정책

1) 여성가족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사업 운영 방향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가정법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를 강화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한다.

(2)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따라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자립역량을 제고시키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체계적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관 되었다.

① 사업배경

학교 밖 청소년은 직업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직무능력 및 소양이 부족하여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취업사관학교의 훈련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② 운영방법

- 취업사관학교 출결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 시 수수료
- 취업사관학교별 내부규정에 따라 기숙형, 통근형 등의 형태로 운영
- 참여 교육생에게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3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CYS-Net은 2005년에 처음 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었던 청소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출범(2005. 4.27)시켰고, 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과제 중 제 1목표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6).

CYS-Net은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청소년이 발견되

면 위기상황을 판정하여 적합한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하여 One-stop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1차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육청, 학교, 사회복지관, 그룹홈, 노동관서, 직업훈련기관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다른 공공기관 중심으로 2차 연계망을 형성한다. 3차 연계망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포괄하는 추진체계를 조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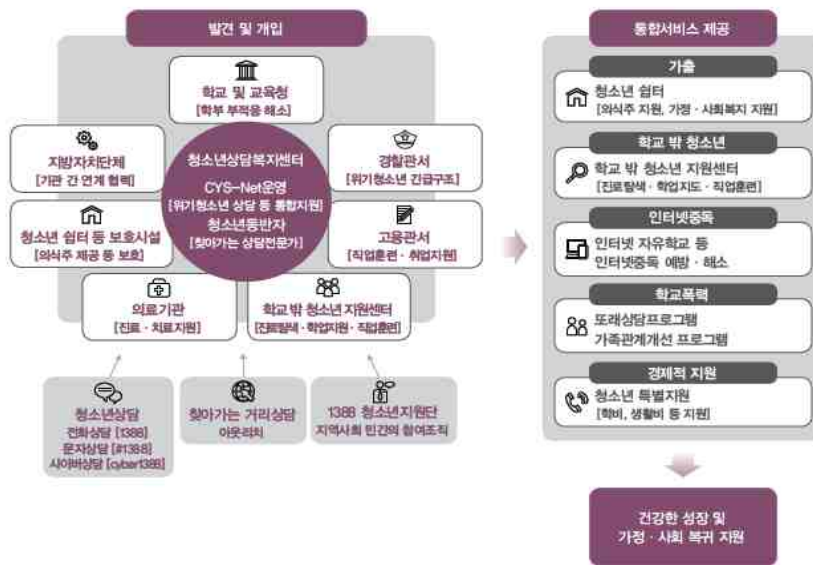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정책 과제로 청소년(청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1) 청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

①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미취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자립 경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계 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개인별 근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추진 체계

자활사업은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③ 지원 대상

청년자활인큐베이팅의 지원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8세부터 24세의 해당 되는 자이다. 학교미진학자, 중퇴자, 가출자 등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근로무능력자이나 사업 참여를 인정하되 근로중심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양하고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은 자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④ 지원 내용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원 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자활인큐베이팅의 지원 내용은 참여자에게 별도의 급여(1일 28,000원)를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활사업 수행 시간이 참여자와 초기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 자활의지, 적성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자립계획을 참여자와 함께 수립한다. 창업인 경우 자활사업수행 기관과 참여자가 함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업종 파견 근무 등을 통해 참여자의 창업 능력을 확인토록 지원해주는 한편, 구체적인 창업계획서를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취업인 경우 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세부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취업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기존에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턴 과정을 두루 거치면서 본인의 적성 및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평가 등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있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6. 15.)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진학일반고최종학년 대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육성,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한다.

(1)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① 지원 대상

- 18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하며(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실직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은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유형,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형은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0,000원 미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 청년층 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고교 및 대학), 대학 졸업 후 실업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은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

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이 해당한다.

② 지원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준에 따라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 지급 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 보상)를 감안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0,000원을 일괄 지급
-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지급 -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월 28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새터민, 여성가장, 우선 선정 직종 훈련참여자 등)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원사업 종료(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 - 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200,000원, 3개월 경과 후 300,000원, 6개월 경과 후 5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 (200,000+300,000+500,000=최대 1,000,000원 지급)
- 청년층 유형, 장년층 유형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뉴스타트 지원 대상은 15세~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의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 중 고졸이하 학력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의뢰가 있는 청소년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실업 해소에 팔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구체적 대안으로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서비스인 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YES프로그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및 구직기

술 제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도 시범운영에서는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층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정책대상자를 ‘취업취약청년층’으로 특화하여 점차 개별 심층상담을 기초로 한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노경란 외, 2008). YES프로그램은 2009년 이후부터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타트는 개인별로 직업진로 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전담상담원을 두어 청년 미취업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별로 취업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동선, 이상준, 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각종 직업심리검사·심층상담에서 취업알선까지 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프로그램(진단·경로 설정, 3-6주)은 총 6회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 및 극복방안을 방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계획(IAP)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직업지도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1단계를 수료하면 참여수당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2단계 프로그램(의욕능력 증진, 1-8개월)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한 개인별 취업계획이나 적성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청년은 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에 연계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은 1인당 2백만원까지 지원(자부담 면제)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지방노동관서는 운영 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 기관은 기업·인턴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 그 후 지방관서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① 지원대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 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특히 2010년 2월부터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졸 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연간 총 1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② 운영기관

인턴 개시 이전에 인턴 참가자에게 3일(또는 15~18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전직무교육은 인턴 개시 전후에 인턴(희망자)을 대상으로 인턴과정(중소기업 이해, 직장 매너, 직업과 삶, 면접 특강,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며, 교육시간은 15~18시간 정도이다. 사전직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중소기업인력개발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③ 인턴급여

인턴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근로기준법 통상 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에서 최고 월 80만원 한도 내에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④ 인턴기간

기간은 약정으로 정한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 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 기관장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인턴 근무경험이 유사직종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2월부터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제도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2. 16일자). 첫째,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한 후 외부 기관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4)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① CAP(Career Assistant Program)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청년층 대상자가 자신의 직업가치관과 흥미, 선호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것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참가자 10~15명 정도가 한 반으로 구성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6시간씩, 금요일은 3시간씩 진행되며, 총 45일간(27시간 수료)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 수당은 없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구직자 등 청년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참가 자격은 없다. 고등학생 직업지도프로그램(만 15세~18세 권장)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진학을 포함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학생용 직업지도프로그램(만 19세~29세 권장)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으로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 일정 등을 담당자와 협의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신청 시에는 모둠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의 고용지원센터 또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진행자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업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으로 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참가자 8~12명 내외로 구성되며, 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 대한 훈련 수당은 없다. 참가자격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접수상담 후 참가 가능)이며, 자신감을 증진하고 싶은 사람, 회사 취업 후 인간관계적응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 취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및 취업과 회사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 나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희망을 하고 싶은 사람, 대인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나. 후기청소년 지원 기관 및 현황

1)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등을 지원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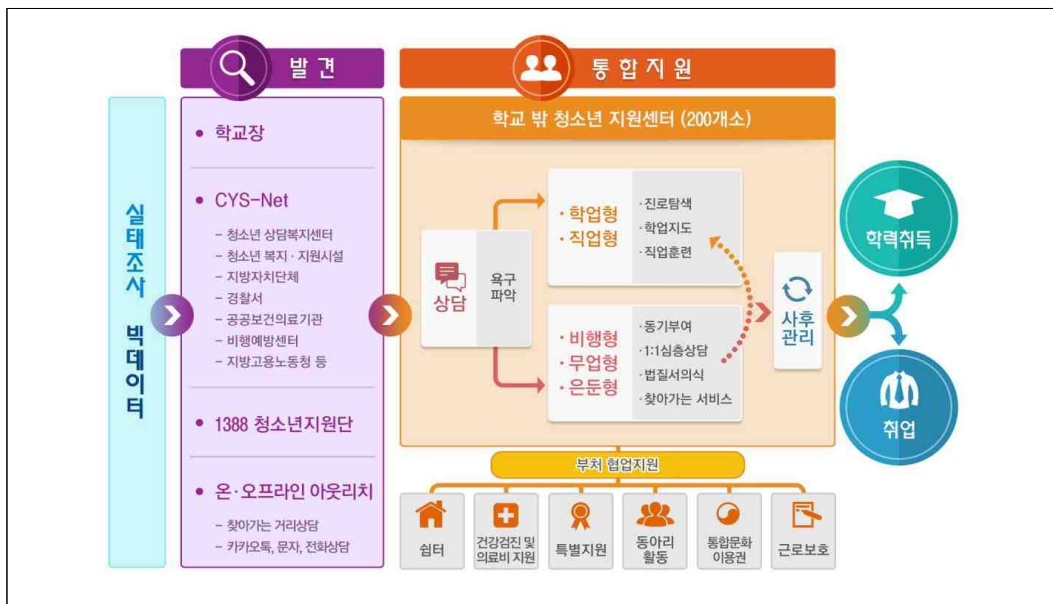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흐름도

(1) 사업내용

① 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의 상담 지원을 실시하며, 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었으나 연락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미지원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② 교육 지원

학업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졸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센터 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거나 검정고시 학원 연계 지원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졸 자격 취득 이후에는 대학입시반 운영과 인터넷 강의 제공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로 재복귀를 원할 경우 기존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에 따라 복귀절차를 안내한다.

③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사관 학교 사업이 '17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취업사관학교 훈련생을 연계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과 검정고시반 운영을 지원한다.

④ 자립지원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 2(교육 및 홍보)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근로 권익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권익 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청소년전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자

체 별 복지사업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체 사례관정을 통해 직접지원이 가능하다.

- 기초소양 교육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권익 교육으로 구성된 권리교육과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 및 성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돕기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기초소양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존 영역에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프로그램(표 2) 참고)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성취동기,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립지원을 촉진하고자 한다.

표 2. 자기계발 프로그램 예시

분야	내용
문화예술	· 악기, 보컬교육, 댄스, 그림, 사진영상촬영, 디자인, 만화, 캘리그래피 등
체육	· 수영, 스쿠버다이빙, 승마, 농구, 축구, 태권도, 검도 등
봉사활동	· 도시락배달, 연탄배달, 노인복지시설, 해외봉사활동 등
과학	· 천체탐구, 게임·앱개발, 모형·로봇 제작 등
환경보존	· 생태탐사, 숲·갯벌 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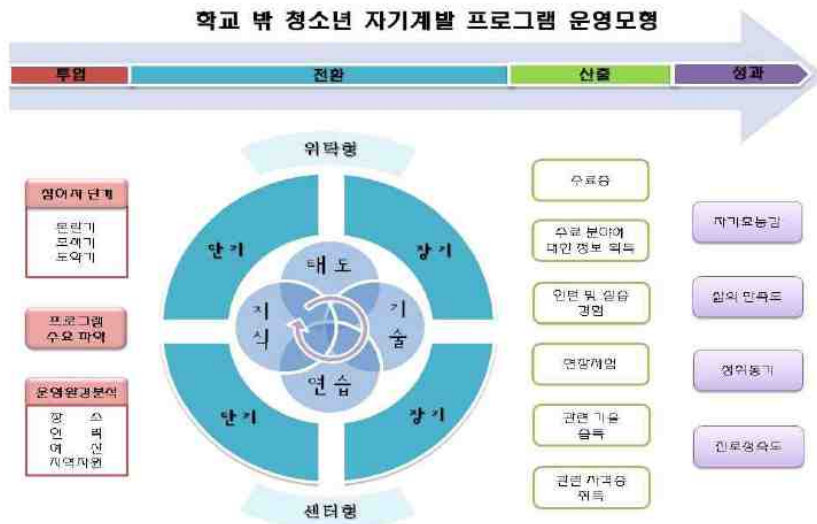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출처 :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업무매뉴얼

-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고자 한다.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6회기 기초과정인 기본프로그램과 9영역 38회기로 구성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모듈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심화과정은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진로캠프 등의 체험활동과 취업이나 직업훈련 연계 등의 사회진입을 지원한다.

표 3. 두드림 프로그램 기본 구성 내용

프로그램명		구조	내용
두드림 기본	드림빌딩(1회기)	4시간	· 미래의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경제야 놀자(2회기)	5시간	· 게임을 통한 기본 경제원리 이해, 합리적 선택 및 돈 관리 등
	직업의 바다로(3회기)	2시간 30분	· 직업세계 탐구 및 직업유형 이해 ·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직업성공전략
	일자리 구하기 대작전(4회기)	2시간 30분	· 구직기술, 모의 면접, 직장예절, 근로권교육
	독립만세(5회기)	2시간	· 자립준비상태 점검, 일상생활기술
	이 세상 최고의 밥상(6회기)	2시간 30분	· 성공목표 설정, 성공계획 수립, 실천 결의 다지기
두드림 특성화		9영역 (38회기)	· 대상: 학업중단/ 시설보호 청소년 · 9가지 자립준비 영역: 목표·가치관, 직업준비, 경제관리, 주거생활, 사회성 기술, 학업교육, 건강, 자원활용기술, 심리·정서

표 4. 두드림 프로그램 심화과정 구성 내용

프로그램명	구조	내용
소풍(직업체험)	1일(직업별)	· 개인/단체희망 직업체험 (소/중/대규모, 개인별 다수 참여 가능)
뽀뽀비즈 (실물경제체험)	2일 (1일 이론, 1일 체험)	· 모의창업을 통한 실물 경제활동 이해
진로종합캠프	2~3일(숙박형) 20명 내외	· 자립준비 관련 기숙형 특별 체험과정 (성공인 특강, 직업체험 실습, 단체생활 협력 등)
사회진입지원	1~3년 (연장가능)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 1대1 개별지원

2)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제1호). 청소년 쉼터의 사업목적은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5. 청소년 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및 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3) 자립지원관

② 이용대상

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 만 24세 이하 가출 청소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없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능(우선적으로 만 20세까지 입소하되, 자체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소기간 연장가능)

③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중장기쉼터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지출 등 경제 생활관리,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독립생활기술 훈련 과정과 지역특성 및 입소 청소년 수요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특화형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자활작업장 및 자활매장, 유관기관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퇴소 후 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임대료 및 집수리 지원연계 조치
- 기본 생계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연계 도시락 및 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지원, 자원봉사 연계, 일자리 연계 등
- 정서적지지 및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직업알선 및 취업지도, 취업알선 등
-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및 연계

다. 후기청소년 국내 정책현황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의 경우 비진학 후기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진학 후기청소년의 경우 교육 및 상담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기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지원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후기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자립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별 후기청소년의 지원 관련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면, 자립, 취업, 진로, 주거, 생계 등과 같은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진로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비진학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포함하는 직업훈련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후기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통한 자립이 후기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후기청소년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 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자기탐색 및 이해를 위한 진로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자기탐색이나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하더라도 심리·정서적인 이유나 부적응 문제로 중도탈락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빈곤청년의 대상에 초점을 둔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다른 부처의 경우 부분적으로 니트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었지만 주로 일반 후기 청소년이나 대학재학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니트족이나 위기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특성화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기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전·중기 청소년의 2016년 CYS-Net이용 비율이 전체의 95.3%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에 후기청소년의 CYS-Net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4.6%에 불과할 정도로 후기청소년의 청소년지원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였다(2016년 CYS-Net 통계). 현재 위기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후기·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기청소년 유형의 다분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욕구와 심리적인 특성들을 고려하기 위해 부처 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계와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라. 후기청소년 해외정책

1) 일본

일본은 청소년이라는 명칭 대신 아동, 청년으로 바꾸고 30대를 포함하여 성인기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특히 일본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학교와 기업연계 시스템과 대학원에 대한 교육투자의 확대가 특징이며 학교와 기업의 연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작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본은 교육예산 중 많은 부분을 고등교육, 특히 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투자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1)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내각부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아동·청년비전」을 통해 정책 대상을 30세까지 확장하였으며, 정책 사업에 따라 40세 미만까지 정책 대상을 포괄해 추진 중이다(김기현, 2016).

(2) 2015년 청소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졸업자와 프리터, 니트 등 핵심적인 지원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접근하고 있다.

(3) Job card 제도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 정규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 개개인의 경력, 학력, 직업훈련경험이력, 자격, 희망취업처 등을 기록한 잡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커리어 컨설팅을 실시한다. 즉,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은 고용형직업훈련과 민간교육훈련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고용형직업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만 위탁형 직업훈련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들은 직업훈련·생활지원급부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강영배, 2011).

(4) 시범고용제도

청년실업자가 주 대상이며 직업경험, 기능, 지식의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시범고용이 종료된 이후 30대 후반의 불안정취업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등정규고용화특별장려금」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5)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취업을 한 것도 아니며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15세-34세의 니트 청년들 대상으로 크게 5가지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 둘째, 청소년상담전문가의 양성, 셋째, 방문지원사업, 넷째,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조기대응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인 청소년이 아닌 보호자들 대상으로 개별면담, 지원방법의 협의 및 모색 그리고 부모의 고민상담 및 해결과 같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강영배, 2011).

2) 미국

미국의 경우 청년의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청소년 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16). Youth Build는 16~24세의 고등학교 중퇴자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임금이 높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들에게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고용기술, 현실적 일 경험을 배우도록 관련기관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교실에서의 훈련, 건설현장 견습생의 임금, 집을 짓거나 개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 서비스, 리더십훈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tate Local Formula Youth Grant는 노동법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장애가 있는 14~21세의 저수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훈련기회, 멘토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영배, 진영선, 2008).

3) 유럽

2013년 유럽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럽의 청년고용제도는 25세 이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공공고용서비스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과 훈련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세션을 통해 실질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뷰 준비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중도탈락이나 니트족으로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김문희, 2015).

(1) 핀란드

핀란드의 고용정책은 교육보장, 젊은 성인들을 위한 스킬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고용 및 경제적 개발 서비스, 시·도의 사회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재활 서비스, 청년층을 위한 워크숍 활동 기회 부여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공공고용 서비스의 역할 강화, 청년고용 관련 네트워크 강화를 들 수 있다. 직업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연령 그룹별로 따라 교육장소를 지역마다 재배치하였으며, 직업 교육 및 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도제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보상을 월 800 유로로 인상하였다. 또한 공공고용 서비스 역할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 대상 진로 상담 기회 확대, Chance Card라는 임금 보조금 지급, 청년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직업 훈련·상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지역 차원의 청년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시 정부 차원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청년 대상 상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와 워크숍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문희, 2015).

(2) 벨기에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훈련(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 Individual Beroepsopleiding in Ondemening, 이하 IBO)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으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작업장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제도이다. IBO는 일반적으로 1-6개월간 지속되는데, 특정 그룹에게는 최고 12개월까지도 허용된다. IBO로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끝나면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 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한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 고용 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VDAB(벨기에 공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고용주들에게 IBO를 안내하고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 사내훈련을 받을 구직자를 제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IBO 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미 후보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VDAB는 IBO

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구직자의 스킬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구직자 맞춤형 훈련계약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역할은 초기 뿐 아니라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관여하게 된다(김문희, 2015).

(3)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취약계층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소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을 마쳤거나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청년들은 일자리나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도시에 남아 있는 청년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일자리를 찾기에 적합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고용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소도시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위해 훨씬 더 적합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한 명의 직원이 청년 구직자 한 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청년 구직자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회서비스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취약계층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희, 2015).

마. 후기청소년 해외정책 현황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미국, 유럽의 해외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후기청소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30대를 포함한 대상을 청년이라고 보고 고용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적인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중퇴를 포함한 비진학 청소년들과 같은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술 및 교육 훈련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청년 고용과 관련된 네트워크 활성화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핀란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와 워크숍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개입을 통한 직업 훈련과 고용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책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후기청소년의

연령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취업에 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단계에서부터 일대일 서비스 또는 코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기청소년의 경우 유형의 다 분화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후기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가. 후기청소년 심리적 지원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길어짐에 따라 역할변화 및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졸업 후 미취업상태가 경과될수록 자존감이 저하되고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다. 또한, 후기청소년의 취업과 관련하여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으로 자기탐색 및 이해를 위한 진로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심리·정서적 지원 보다는 진로설정 및 취업 지원, 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6년 상담이용률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사용자의 5%에 불과하다.

후기청소년은 대학생, 청년구직포기자(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군장병 등 다분화되어 있어, 이들의 욕구와 역량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후기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조규필, 2013). 또한, 2016년 CYS-Net 개인상담 이용 통계에서 후기청소년의 주호소문제의 경우, 진로 및 학업, 정신건강 등 진로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중기 청소년의 주호소문제가 학업, 대인관계, 컴퓨터·인터넷 사용인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은 전·중기 청소년과 다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후기청소년 유형별 심리적 지원 방안

후기청소년들은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의 특성을 가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연령보다는 대학생,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의 현재 상태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분화된 상태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으나, 대학생과 같은 후기청소년의 일부 하위집단을 대상만으로 논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후기청소년 하위집단별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하위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3, 2015)의 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은 후기청소년을 대학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특히 니트족 청소년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취업 및 구직 청소년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을 크게 니트족, 대학재학생, 취업자, 취업준비생으로 나누고 이들과 상이한 특성을 가진 군장병을 하위집단으로 추가하였다.

후기청소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업청소년(니트족)의 수가 전체 후기청소년의 40%가 넘는 150만에 육박하고 있어(통계청, 2015), 이를 위한 우선적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업청소년(니트족)의 경우, 다른 집단 유형에 비해 낮은 자존감, 부정적 미래관,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 자기주장, 자기조절력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이나 불편감이 높으며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정체감 혼미의 상태로 장래의 계획, 생의 목적, 성, 직업, 친구관계 등에 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이경선, 2015). 니트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능력 증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정연순 외, 2010).

대학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우울감,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으며(YTN, 2016. 09. 20),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각각 12.%,

20.5%의 수치를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또 한편으로, 대학생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대비 0.8%가 증가(교육부, 2016)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상담센터의 여건이 다르고 상당수의 대학생이 적절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학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 대학 432개 중 43.9%인 190개교에 불과하다(교육통계연보, 2016). 최윤미(2012)의 대학상담센터의 현황 연구에서는 대학상담센터 이용률이 10%미만인 경우가 다수이며, 단회기 상담이 주를 이룬다. 6회 미만의 단회기 개인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보다는 지도나 조언을 통해 단회기에 상담을 끝나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준재(2006)는 대학상담에서 개인상담 문제영역과 회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단회상담은 진로상담이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정신건강 및 위기상담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대학생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대학생의 위기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고위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기상담 체계가 필요하다.

후기청소년들이 복무하고 있는 군대의 경우, 군대의 특성상 고위험 사고(총기난사, 자살, 탈영, 폭행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병영상담전문관이 군대에서 위기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군대 내 군위험 사고발생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또래상담병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군입대 전 경험하지 못했던 특수하고 통제된 군생활을 위한 준비 및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군입대 전 교육이 필요하다. 군제대 후에는 진로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졸업유예생 및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성을 보인다. 또한,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에 대해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 취업자 중 특히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과 대처방법이 미흡하다. 또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근로조건 불만족, 잦은 이직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 진로 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 방법

1. 모형 개발 절차

본 연구의 모형 개발을 위해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학계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천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모형 개발에 적용한 프로그램 논리모델과 국내외의 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는 대학상담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현재 후기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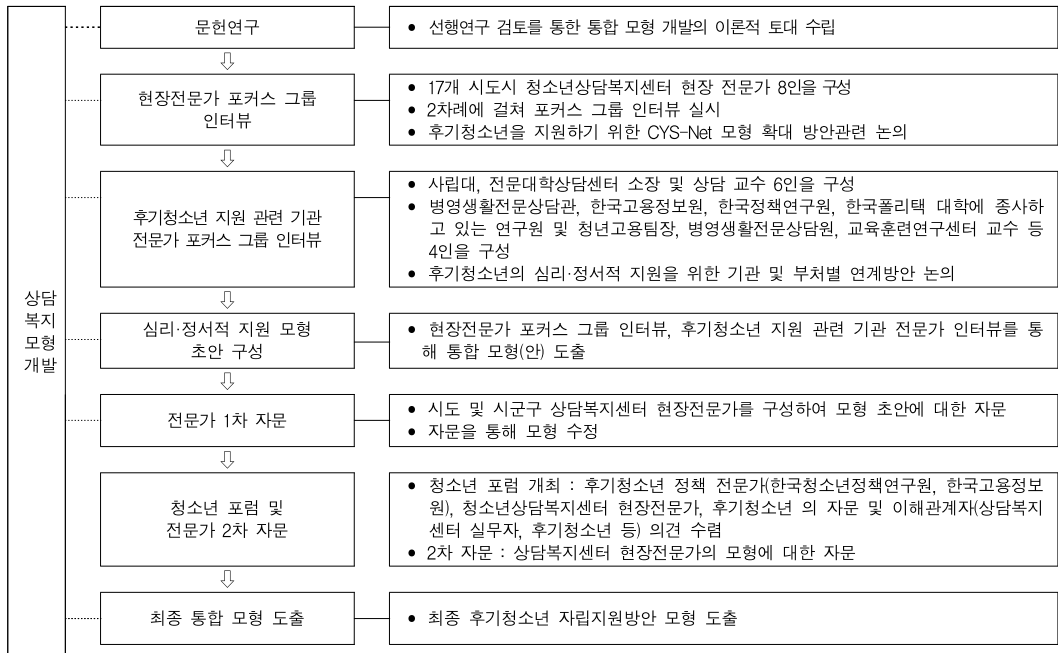


그림 4.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개발 절차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모형 개발을 위하여 경험적 기초자료를 얻고자 후기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면서 경험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기청소년 상담복지 모형 개발을 위하여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후기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모형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전문가 1차·2차 자문

전문가 1차·2차 자문은 문헌고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모형에 대해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현장전문가 집단을 통해 실시하였다. 1차 현장 전문가 자문은 모형 초안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자문내용을 토대로 모형의 초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은 2차 자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4) 청소년 포럼

청소년 포럼은 모형의 정책적·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후기청소년 지원 연구 및 사업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 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로부터 수정된 모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후기청소년 및 학교밖 지원센터, 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의견을 토대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IV.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후기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급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2집단으로 구성한 후 총 2회(각 120분)에 걸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은 <표 6>과 같다.

표 6.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인원	소속	성별(연령)
서울 경기	4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30대)
		B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C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40대)
		D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부산 경남	4	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30대)
		F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30대)
		G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2) 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상담 전문가로 상담전공 교육학박사 3인, 다수의 질적 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 1인, 후기청소년지원 서비스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1인 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후 교육학박

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의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의 소개 및 후기청소년 지원 관련 경험 •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후기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느낌
주요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복지센터 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방법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 강화 방법 • 후기청소년 유형별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지원에 대한 생각 • 대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대학상담센터 연계 방법 • 군장병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연계방법
마무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 지원 및 연계 관련한 제언점 • 인터뷰 마무리

3)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은 3~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2개 집단(각 120분) 총 8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교육학전공 박사 1인이 주 진행자로, 교육학 및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 또는 석사 1인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 박사 2인 및 심리학 석사 1인의 감수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4) 분석결과

(1)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기존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다섯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전화상담은 1388 전화상담과 위기상담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상담은 주로 개인상담 대상위주로 구분되었는데 위기개입이 필요한 고위기상담, 대학교를 중도탈락한 대학생 상담, 비진학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폴리텍 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상담,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상담, 병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군장병 상담, 직장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근로 청소년 상담,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상담이 제안되었다. 특이한 것은,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이나 자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후기청소년 부모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후기청소년 부모상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단상담은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생활부적응 집단상담, 자기성장 집단상담, 또래상담을 지원할 수 있고, 수강명령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군장병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사이버상담은 후기청소년 상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안되었고, 후기청소년 대상 심리검사도 제안되었다.

표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화상담	· 1388 전화상담 · 위기상담
	개인상담	· 고위기상담 · 대학교 중도탈락 대학생 상담 · 비진학청소년 진로상담 · 폴리텍 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상담 · 부적응 사회복지무요원 상담 · 군장병 병영적응 상담 · 기업체 근로 청소년 상담 ·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청소년 사회적응 상담 · 후기청소년 부모상담
	집단상담	· 대학생활부적응 집단상담 · 대학생 자기성장 집단상담 · 대학생 또래상담 · 수강명령 청소년 사회적응교육

		· 군장병 대상 진로교육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 심리검사
CYS-Net 서비스 확대	대상자 확대	· 후기청소년 연령확대
	자립 및 진로지원	·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진로 선택 · 사회성 훈련 · 기업과의 MOU 체결 · 타 기관과의 연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 유형진단 · 고등학교 3학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 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 비진학 청소년 취업연계 자립 프로그램 ·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	· 1388 전화상담 확대(위기상담) · 심리상담 · 중독문제 상담 · 대인관계 상담 · 대학생 학교부적응 상담 · 대학생 또래 상담 · 청소년 동반자
사례발굴	홍보강화	· 민간기업과 홍보 협약 · TV 광고 · SNS 홍보 · 이동상담소 · 취업준비생 모임 지원 ·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집중 홍보 · 연계기관 발굴
	기관연계	· 폴리텍 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 주민센터 통합사례 관리자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자아정체성 문제	· 자발적 동기 · 자기이해 · 대인관계문제 · 진로문제
	가족문제	· 가족갈등 및 불화
	정신건강문제	· 정신병리 · 중독문제 상담 · 좌절감 및 무기력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위기개입	· 위기개입 · 기관간 연계

		· 1388 전화상담
	또래상담	·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군장병 심리·정서적 지원	연계체계화	· MOU 체결 · 지원대상 연령 확대 ·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상담제공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	거점기관운영	· 대상 지역 선정
	기존인력활용	· 후기청소년 상담 교육 · 기존인력 활용
	인력충원	· 팀구성 · 전문인력 확보 · 진로전문가 충원
	정책마련	· 부처간 연계
	예산확보	· 예산확보

(2) CYS-Net 서비스 확대

CYS-Net 서비스 확대 시,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상자 확대, 자립 및 진로지원,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의 네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먼저, 대상자 확대에서는 현재 CYS-Net이 초·중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담수혜 대상을 24세 후기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홍보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24세까지로 끊기보다는 29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다른 청년사업과 연계하는데 있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둘째, 자립 및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선택 프로그램, 사회적 훈련, 기업과의 MOU 체결 직장생활적응 프로그램,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훈련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셋째,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취약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한 유형 진단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비진학 청소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넷째,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1388 전화상담을 확대(위기상담)하고, 심리상담, 중독문제 상담, 대인관계 상담, 대학생 학교부적응 상담, 대학생 또래상담, 청소년 동반자 상담이 제안되었다. 특히, 중독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스마트폰 및 도박 관련 중독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동반자 상담과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3) 사례발굴

사례발굴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홍보강화와 기관연계의 두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홍보강화는 민간기업과의 홍보 협약 및 TV광고, SNS 홍보, 이동상담소를 통한 홍보, 취업준비생 모임 지원, 후기청소년 프로그램의 집중 홍보, 연계기관 발굴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연계는 대학생상담센터가 없는 폴리텍 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자와의 연계를 통한 발굴이 제안되었다.

(4)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아정체성 문제, 가족문제, 정신건강문제의 세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자아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 동기가 중요하며, 자기이해, 대인관계문제,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문제는 해체된 정서가 많아 가족갈등 및 불화 문제로 인한 고민이 많고,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병리, 도박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중독문제, 좌절감 및 무기력문제로 인한 고민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5)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대학생의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에 관한 질문에서, 위기개입과 또래상담의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대학상담센터의 경우 자살과 같은 긴급 위기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CYS-Net의 위기개입이 대학상담센터와 연계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 연계방안으로 1388 전화상담(24시간 운영)을 대학상담센터 전화와 연계하여 24시간 위기상담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지원을 통해 또래상담 동아리가 대학에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연계방안에서 주요하게 제안되었다.

(6) 군장병 심리·정서적 지원

군장병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계체계화가 주요하게 제안되었다. 연계체계화 방안으로는 상담센터와 군부대 간 MOU체결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무요원 중 부적응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24에서 29세으로 지원 대상의 연령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7)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자원체계 구축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점기관 운영, 기존 인력 활용, 인력충원, 정책마련, 예산확보의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거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후기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기존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 인력활용도 중요하지만,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인력충원은 팀 차원으로 구성되고, 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진로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후기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처 간 연계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되었다.

2.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후기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 대학학생상담센터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2집단으로 구성한 후 총 2회(각 120분)에 걸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은 <표 9>와 같다.

표 9.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일자	인원	소속	성별(연령)
대학학생상담센터	2017.6.8	4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남(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여(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남(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여(40대)
유관기관	2017.6.13	4	직업훈련 대학기관	여(30대)
			병영생활전문관	남(30대)
			한국고용정보원	여(40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40대)

2) 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상담 전문가로 상담전공 교육학박사 3인, 다수의 질적 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 1인, 후기청소년지원 서비스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1인 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외,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후 교육학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의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의 소개 및 후기청소년 지원 관련 경험
주요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후기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느낌 •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방법 • 후기청소년 지역사회 내 연계 서비스 방법 • 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에 대한 생각
마무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 지원 및 연계 관련한 제언점 • 인터뷰 마무리

3)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은 3~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2개 집단(각 120분) 총 8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상담전공 박사 1인이 주 진행자로, 상담을 전공한 박사 또는 석사 1인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

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 박사 2인의 감수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4) 분석결과

표 11.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현재 지원하는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대학생 지원	· 개인상담 · 심리검사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직업훈련(폴리텍대학)
	군장병 지원	· 개인상담 · 집단교육(진로/의사소통/자살) · 또래상담 · 간부대상 상담교육
	청년 고용 지원	· 정책개발 · 취업지원
CYS-Net 확대	심리·정서적 지원	· 심리상담
	진로상담	· 진로상담
	기관연계상담	· 고위기 청소년상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 소수계층 대학생 상담 · 대학생 학교생활부적응/중도탈락 · 전문대학생 심리상담 · 폴리텍대학생 심리/성문제/진로 · 니트족 사회적응상담 · 군장병 입문교육/군생활적응상담
사례발굴	공적서비스 연계	· 노동부 청년카드 연계 · 사회복지사 연계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생활적응 문제	· 은둔 · 군생활부적응 · 대학 학업중단
	진로문제	· 취업불안 · 진로미결정
	심리·정서 문제	· 의존성 · 불안정성 · 무기력감
	경제 문제	· 경제적 어려움
연계강화	정부부처간 연계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서비스 지원 플랫폼
	대학과의 연계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의 연계 · 센터-대학상담센터 공동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 위기상담 · 치료기관 연계지원 · 소수자 상담(장애인, 여학생 등) · 학교부적응 및 휴학생 상담 · 또래상담 · 캠페인 사업 · 청소년동반자 상담
	군장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동반자 상담 · 군입대전 군대생활입문교육 · 진로교육 · 위기상담
	연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양성 · 인력증원
	대학연계시 고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상담센터와의 차별점 · 대학유형별 지원 · 대상자 발굴 어려움

(1)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현재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대학생 지원, 군장병 지원, 청년의 고용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대학생 지원은 주로 대학상담센터에서 지원하는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폴리텍 대학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장병 지원으로는 군병영생활전문관에 의해 개인상담, 집단교육, 또래상담, 간부대상 상담자 교육이 운영되었다. 청년고용지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정책지원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CYS-Net 서비스 확대

CYS-Net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먼저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기관연계상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제안되었다. 특히,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및 여학생 중심의 소수자 대학생 상담, 대학 중도탈락이나 휴학생 대상 학교부적응상담, 전문 대학생대상 생활지도 및 심리상담, 폴리텍 대학생 대상 심리·정서·성·진로 등 전반적인 상담, 니트족 대상 사회적응 상담, 군장병 대상으로 입대 전 군대생활적응상담 및 군생활 적응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3) 사례발굴

사례발굴 방법으로는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카드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4)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로는 크게 사회생활적응문제, 진로문제, 심리·정서 문제, 경제적 문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적응문제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군생활 부적응 문제, 대학학업중단 문제를 들었으며, 진로문제로는 취업불안 및 진로미결정으로 인한 불안을 들었다. 또한 심리·정서적 문제로는 심리적 독립이 되지 못하고 의존적인 태도, 불안정성, 좌절로 인한 무기력감 등을 보고하였다.

(5) 연계강화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부처간,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다. 먼저 정부부처간 연계에 대해서 강조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진로상담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부처와 기관이 연계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의 진로상담 연계, 전화상담 및 위기상담 제공, 치료기관 연계지원, 장애인 및 여학생 등 소수자 상담제공, 학교부적응 및 휴학생 상담 등 상담영역에서의 연계 또래상담 운영지원 및 캠페인 사업, 공동교육사업 운영 등 교육 및 사업에서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때 대학과의 연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상담센터와 차별성 및 취업 등을 바쁜 대학생의 참여 유인가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별로 상황 및 특성이 상이한 바 대학유형별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군장병 대상 연계와 관련하여 군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장병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동반자 상담, 군입대전 군대생활입문교육, 군장병 대상 진로교육, 자살 등 위기상담에 대한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양성되어 각 센터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3. 의견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앞서 후기청소년 상담복지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현장전문가 총 8명, 유관기관 전문가 8명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CYS-Net 서비스 확대, 사례발굴,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군장병 심리·정서적 지원,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으로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서 고위기 후기 청소년, 대학교 중도탈락 대학생, 비진학청소년, 부적응 사회복무요원, 군장병, 기업체 근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 유형별 대상에 따른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CYS-Net 서비스 확대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연령이 확대 될 필요가 있으며, 후기청소년 유형별에 따른 자립 및 진로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사례발굴에서는 홍보강화 및 기관연계에 대한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으로 자아정체성 문제, 가족문제, 정신건강문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후기청소년 전담 인력의 필요성과 인원충원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부처간 연계와 예산 확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의 경우 현재 지원하는 후기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CYS-Net 서비스 확대, 사례발굴,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문제, 연계강화로 대범주가 도출이 되었다. 현재 지원하는 후기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대상 유형별 심리상담 및 고용 지원이 도출되었다. CYS-Net 확대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기관 연계상담을 포함하여 소수계층, 중도탈락 위기 학생, 전문대학생, 폴리텍대학생, 니트족, 군장병 등 후기청소년 유형별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공적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례발굴, 정부부처 및 후기청소년 유관기관의 연계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유관기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CYS-Net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및 지원, 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관 연계를 통한 사례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원 방안, 행정지원 등에 관한 구

체화된 통합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포함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모형에서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리·정서적 지원 및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포함한 후기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이 필요하다. <표 12>는 선행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유형별 심리·정서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후기청소년 유형별 심리·정서적 특징

구분	특성	지원방안
무업청소년 (N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 -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및 자존감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유예생,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 -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 -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 졸업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 및 복지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과 대처방법이 미흡 -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필요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 직무몰입도에 있어 낮은 수준 - 근로조건 불만족, 고용계약만료 외,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 부재'의 사유가 이직 및 퇴사에 가장 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및 노동권 인지 수준 향상 교육 제공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심리·정서적 지원 - 진로 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대학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대학 1-2학년생 반수, 편입, 대학중퇴 시도, 휴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저학년시기 진로탐색 및 개발 집중 지원 - 대학 중도 탈락자 심리·정서적 지원 - 대학 학생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재학생 심리·정서적 건강 지원 서비스 체계화

군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입대에 대한 준비 미비 및 이후 진로에 대해 불명확 - 경험하지 못했던 특수한 단체생활, 통제된 생활로 인해 혼란 및 부적응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대상 상담교육 - 군장병 또래상담 -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심리상담 - 군장병 청소년 동반자 - 군입대 전 교육 - 군제대 후 진로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	--

둘째, 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후기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후기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취업과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후기청소년의 다분화에 따른 맞춤형 모형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가 감수, 청소년 포럼 결과 및 모형 수정

문헌고찰 및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도출된 통합모형 기초 안에 대해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 현장전문가 집단을 통해 2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청소년 포럼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2차 자문회의에서 상담복지센터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후기청소년 상담복지 모형이 개발 후, 이를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적용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1차는 9월 모형 초안 구성안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받고, 2차는 1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1차 자문을 통해 수정한 모형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1차와 2차 자문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후기청소년 지원 모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굴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특히, 니트족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SNS 홍보, 구직사이트와의 연계, 청소년동반자 활용, 후기청소년 전담 인력 배치 등의 발굴 단계가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후

기청소년의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체제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ADJUSTMENT 단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MPOWERMENT 단계에서는 타 부처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모형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후기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의 배치가 필요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충분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후기청소년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전·중기청소년 중심 상담체제를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침상 상담실적이 19세 미만 청소년만 적용하는 것을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주요대상에 후기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실무자조차 후기청소년이 상담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바, 후기청소년 상담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인 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실무자가 후기청소년 대상 상담지원이 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CYS-Net 체계 안에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필수 연계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을 담당하는 병무청을 필수연계기관에 포함시켜 부적응 사회복지요원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모형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할 방안 및 이해관계자간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포럼을 개최하였다. 청소년포럼은 수정된 후기청소년모형의 내용을 발표하고, 모형에 대한 자문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정 토론 및 자문은 후기청소년지원 연구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 2명, 모형의 운영주체인 시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1인, 정책 수혜자인 후기청소년 1인이 진행하였다. 토론 및 자문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정책대상으로의 후기청소년의 연령을 23세에서 확대하고 후기청소년대신 청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20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의 경우도 20대에서 30대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책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처간,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과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처간 연계 등 상급기관에서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현장의 직접 지원기관간의 연계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각 사업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공유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유관기관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시 심리·정서적 지원모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관 평가에 연계실적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셋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가 공통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정책수혜자인 후기청소년 입장에서 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부처 지원 사업의 명칭을 통일하고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연계가 제안되었다.

자문회의와 청소년포럼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유형별 심리·정서적 지원, 부처·유관기관 간 연계 등 모형을 수정·보완하였다.

V.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1.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가.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도출해낸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의 구성요소를 크게 예방, 발굴,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사후관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3단계의 지원단계로 구조화하였다.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정망 확대를 통하여 후기청소년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기본모형을 근거로 후기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예방은 향후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3 졸업반 대상으로 새내기 적응(진로 및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회진입 이후에도 후기청소년 관련 진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발굴에서는 다양한 채널 및 기관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지며, 크게 CYS-Net, 지역대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홍보, 기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CYS-Net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1388 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굴이 이루어진다. 지역대학의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위기상담 사례 발굴이 가능하며, 특히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방통대 등 상대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취약한 대학과 연계하여 학교부적응 대학생을 발굴할 수 있다. 청소년 유관기관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이용자,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자 등이 있다. 또한, SNS, TV 매체, 구직사이트 등 매체를 통한 후기청소년 발굴이 이뤄질 수 있다. 기타 기관의 경우, 병무청과 연계를 통한 부적응 사회복무요원 발굴, 군부대 연계를 통한 부적응 병사 발굴,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연계를 통한 취약청소년(니트족 등) 발굴, 기업체와 연계하여 사회적응,

대인관계 등 상담 필요 사례 발굴, 법무부 보호관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발굴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및 복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등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후기청소년의 문제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세 개 부처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한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므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후기청소년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채널 및 기관을 통해 발굴된 후기 청소년은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때, 발굴된 후기청소년은 먼저 서비스 플랫폼에서 욕구 및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한다.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타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다. 베이스캠프는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전진기지이자 근거지로써, 목표 오르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후기청소년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취업과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세 번의 ‘Go’ 과정으로서, ‘나를 알Go’ (자기이해), ‘적응하Go’ (심리·정서적 안정), ‘계발하Go’ (자기계발) 3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연계 및 관리 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상황 및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 생활지도, 의료, 자립영역에서 필요한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림 5.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1) ‘나를 알Go’(ASSESSMENT) 단계: 자기이해 및 욕구 평가

(1) 서비스 플랫폼

- 전문상담자가 후기청소년 유형(대학재학생, 군장병, 니트족, 취업준비생, 취업자 유형별)의 욕구(need)와 심리적 적응수준, 진로계획 등 다각적인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속관리
- 욕구에 따라서 네트워킹 단계로 연계: 지역 내 다양한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 구축

(2) My Life App 구축 및 운영

- 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용자에게 참여 프로그램 사용 현황 및 내용, 향후 프로그램 내용 등 정보제공 및 피드백 제공
- 프로그램 제공 기관에 이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정보 제공

2) ‘적용하Go’(ADJUSTMENT) 단계: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심리·정서적인 부적응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위기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등 기존 CYS-NET 서비스 확대
- 니트족, 대학 및 군대 부적응 청소년 대상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한 이동상담 강화
- 대학생 및 군인의 경우 긍정적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강화

3) ‘계발하Go’(SELF-EMPOWERMENT) 단계: 자기계발

- 후기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계발, 진로설계를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지원
- 니트족, 소도시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을 위해 원격 코칭 제공
- 진로상담 제공

4) 연계 및 관리 단계(NETWORK) : 관련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대학기관(대학상담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병영생활전문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고용지원센터, 병원 등에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나.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인 니트족의 경우, 적극적인 대상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후기청소년 하위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을 보이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이나 불안감이 높으며,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정체감 혼미 상태를 보이는(이경선, 2015) 니트족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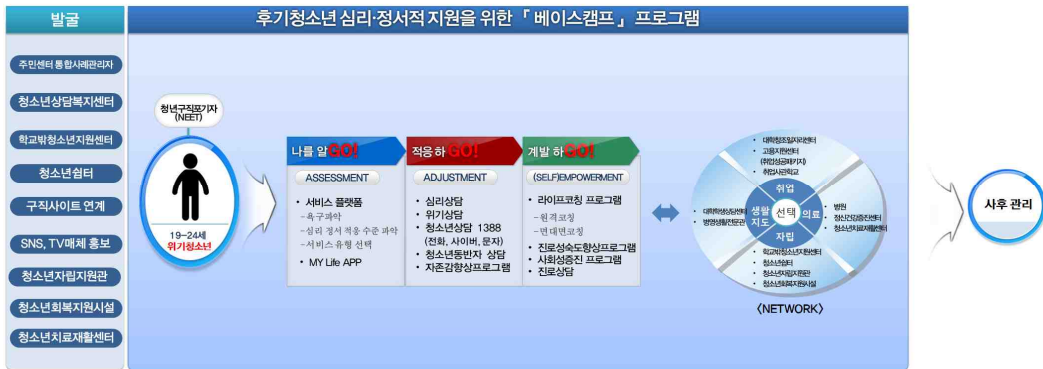


그림 6.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1) 발굴단계

연계기관의 다양화 및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자를 연계를 통해 니트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은둔형 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SNS 및 TV매체,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 지원 이용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자들을 통해서도 해당 대상자를 발굴한다.

2) ASSESS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 정서 적응 수준, 진로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ADJUST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위기상담 및 진로상담을 포함하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은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제공을 통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1388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문자상담과 같은 매체상담 홍보 및 제공을 통해 은둔형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돕는다.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 낮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는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4) (SELF) EMPOWER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자립동기와 진로성숙도가 낮은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동기 강화 및 진로성숙도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집중 제공을 통해 자립동기 강화 및 진로성숙도 고취를 돕는다.

5) NETWORK 단계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동기 제고를 통한 진로 계획 설계 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니트족 후기청소년의 실질적인 취업 및 자립 지원을 돕는다.

다.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졸업유예생과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자의 경우,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수준과 미흡한 대처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및 복지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제안한다. 또한, 취업자 대상 노동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및 노동권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진로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및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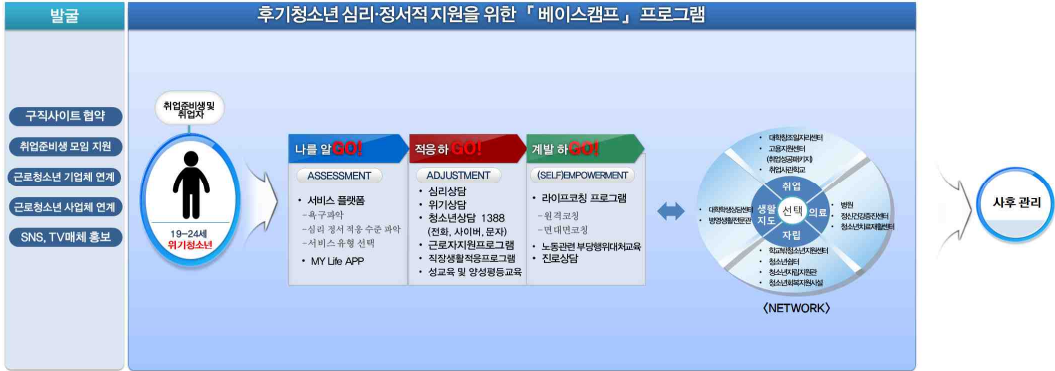


그림 7.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1) 발굴단계

온라인 구직사이트와의 협약을 통해 취업준비생 대상 홍보 및 발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취업준비생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활동지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취업상태인 근로 후기청소년의 경우, 중소기업, 지역 사업체, 기업체 연계 및 협약을 통해 직장생활 부적응 근로청소년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SNS 및 TV매체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2) ASSESS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후기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 정서 적응 수준, 진로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ADJUST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인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적성 탐색을 통한 진로설계, 자기탐색 관련 진로상담 제공함으로써 진로설계 및 취업을 돕는다. 더불어, 취업준비생의 경우,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른 우울 및 무기력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취업상태인 근로 후기청소년의 경우, 직장 스트레스, 우울, 대인관계 및 사내 적응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후기청소년 중 고졸 비진학 근로청소년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근무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불이익 경험이 높고, 근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취약한 바 (한국고용정보원, 2013),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사회적응,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청소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동관련 부당행위 대처방법 및 노동권 인지 수준 향상 교육,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준비생, 취업자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기본적으로 위기상담을 포함하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1388(전화, 사이버, 문자)을 제공한다.

4) (SELF) EMPOWER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돕는다. 취업준비생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대학입시 준비, 직업기술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취업연계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NETWORK 단계

구체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후, 고용노동부 연계 및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한 직업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근로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를 고려하여 고용지원센터, 대학창조일자센터와의 연계를 제공한다.

라. 대학재학생: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대학재학생의 경우,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교내 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폴리텍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에 폴리텍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에 청소년동반자 파견 등 우선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1388 전화상담 연동 및 1388 지원을 통해 대학재학생의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 유형에 따른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림 8. 대학재학생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1) 발굴단계

교내 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폴리텍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 중도탈락 위기학생, 휴학생을 발굴하고자 한다. 일반 대학상담센터의 경우 또래상담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사례 조기 발굴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담서비스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외국인과 같은 소수계층 대상을 발굴하고자 한다.

2) ASSESS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대학재학생의 유형별에 따라 이들의 욕구 및 심리 정서 적응 수준, 진로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ADJUST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대학재학생인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도탈락 위기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상시적인 시간관리 및 학업지원이 필요하므로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간 휴학을 마친 복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학업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강화한다. 청소년동반자 상담, 또래상담 외에도 기본적으로 위기상담을 포함하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1388(전화, 사이버, 문자)을 제공한다.

4) (SELF) EMPOWER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돕는다. 대학 재학생 중 중도탈락 위기학생, 휴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NETWORK 단계

심리·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 고용지원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준비 기반 마련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기사례의 경우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의료 관련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 군장병: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군장병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위기상담 및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사회 복무 중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군장병,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또래상담과 청소년동반자 상담을 활성화 하여 군장병의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군제대 전·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포함하여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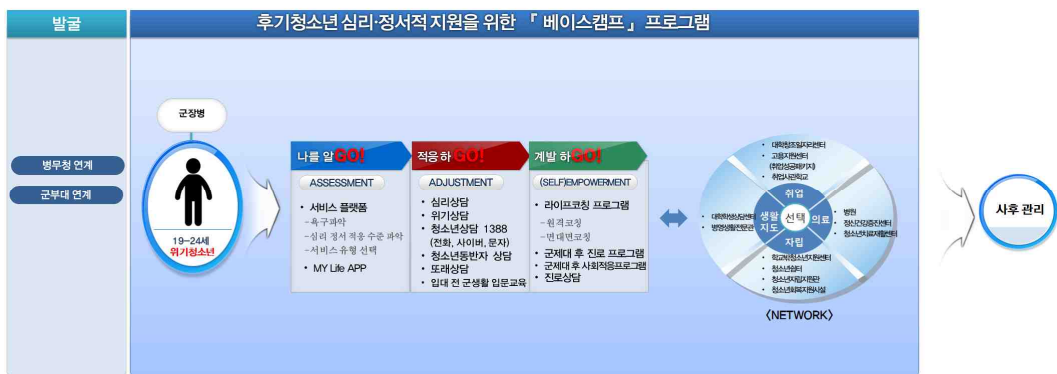


그림 9. 군장병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1) 발굴단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연계하여 위기상담사례 및 의가사 제대 군장병, 제대 직전 군장병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병무청과의 연계를 통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2) ASSESS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군장병의 유형별에 따라 이들의 욕구 및 심리 정서 적응 수준, 진로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ADJUST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군장병인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입대 전 후기청소년의 경우, 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입문교육 상시적인 시간관리 및 학업지원이 필요하므로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간 휴학을 마친 복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학업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강화한다. 청소년동반자 상담, 또래상담 외에도 기본적으로 위기상담을 포함하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1388(전화, 사이버, 문자)을 제공한다.

4) (SELF) EMPOWERMENT 단계

본 단계에서는 군제대 전·후 사회적응 도모를 위한 군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돕는다. 군장병 중 입대 전 대상자, 군제대 후 대상자, 의가사 제대자를 대상으로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NETWORK 단계

심리·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 군 제대 이후에 고용지원센터, 대학창업일자리센터, 중소기업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준비 기반 마련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기사례의 경우 의료 관련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모형 전달체계

후기청소년 상담복지 모형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후기청소년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를 제안한다.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은 후기청소년의 상담 및 진로코칭을 포함한 심리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 후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배치된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은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니트족, 군장병,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유형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후기청소년 유형별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둘째, 후기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을 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후기청소년 유형별 상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후기청소년 유형별에 따른 특성과 주호소문제와 상담 기법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설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연수 시 후기청소년 이해 및 진로지도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 전담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요구된다. 특히, 후기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장병과 대학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돕기 위해 병영생활전문관을 대상으로 군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과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자 대상으로 대학생용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후기청소년지원 역량강화 교육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학상담센터협의회간의 협력을 통하여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발굴단계에서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전달체계는 그림 10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폴리텍 대학 등 후기청소년의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심리·정서적지원

이 필요한 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경우 병영생활전문관 내의 군부적응 대상자, 의가사 제대 군장병, 제대 직전 군장병을 발굴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학상담센터협의회는 상대적으로 상담서비스가 열악할 수 있는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하여 대학학생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재학생의 위기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도탈락 위기학생 및 휴학생과 소수계층 대학생을 발굴하여 대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운영주체별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운영주체별 역할은 그림 11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 지원 및 사업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타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앙 지원기관으로 시·군·구 센터 운영체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지도·감독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동시에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유관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도 센터의 경우 시도 단위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수요 및 요구분석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시·군·구 센터 운영 지원 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군·구 센터의 경우 후기청소년 사업 운영과 사례 관리를 포함하여 지역 내 후기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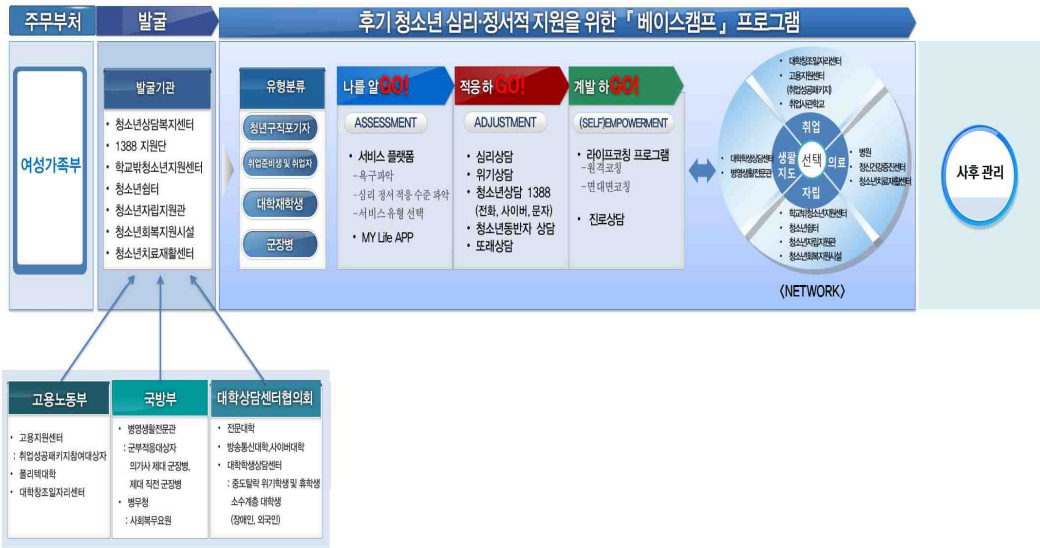


그림 10.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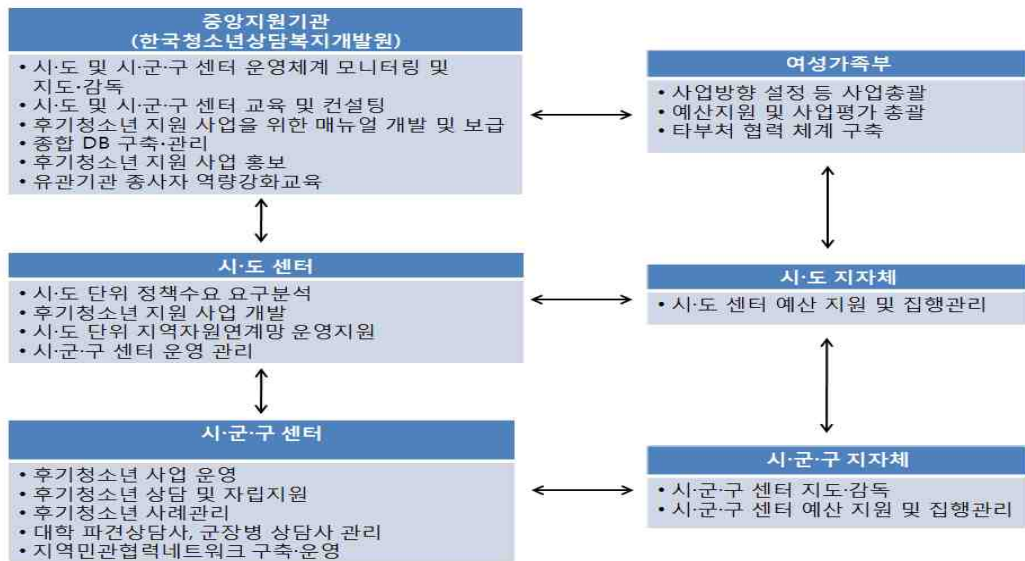


그림 11.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운영주체별 역할

3.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구축, 특히 후기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대학상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병영생활전문관 등)의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형의 목적은 후기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후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데 있다. 또한 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후기청소년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상은 후기 위기청소년이며, 나아가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원하는 일반 후기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모형의 주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방, 발굴, 지원(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사후관리 단계가 있다. 먼저 예방단계는 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위기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진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으로, 발굴단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후기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단계로서, CYS-Net 활용,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알바몬 및 SNS 등 매체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를 제공하는 3단계 ‘나를 알Go’ (Assessment 단계), ‘적응하Go’ (Adjustment 단계), ‘계발하Go’ (Self-Empowerment 단계)와, 기관과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셋째, 모형의 주요 초점은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이라는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다. 등산이나 탐험중 고지에 오르기 전에 준비나 휴식을 하는 전진기지이자 근거지라는 개념인 베이스 캠프 개념은 취업, 결혼 등 성공적 사회진출이라는 목표 달성 전에 우선되어야 할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진로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요 핵심 내용은 세 번의 Go단계, 즉, ‘나를 알Go’, ‘적응하Go’, ‘계발하Go’ 로서, ‘나를 알Go’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적 적응수준 등 평가를 하고, ‘적응하Go’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상담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발하Go' 단계에서는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넷째, 모형은 후기청소년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강조한다. 후기청소년 유형이 다분화됨에 따라 그 욕구와 특성이 상이한 바 지원내용도 차별적이어야 한다. 즉, 무업청소년(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 등 유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먼저, 무업청소년의 경우 주민센터 통합사례 관리자 연계,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 연계, 구직사이트 홍보 등 다양한 발굴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위기상담을 강조한다.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에게는 온라인 구직사이트 협약, 기업체 또는 사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직장 스트레스 관리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 등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재학생관련 서비스로는, 폴리텍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 대학상담센터 활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에는 청소년동반자를 파견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4년제 대학에는 대학상담센터와 연계하여 1388 전화상담 지원(24시간 위기상담), 긴급구조 등 위기개입과 함께 대학생 또래상담 교육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군장병 대상 지원과 관련하여 병무청 및 군병영생활전문관과 연계하여 의가사 제대 군장병, 부적응 사회복지요원 등 대상을 발굴하고 군장병 또래상담 교육 및 군제대 군장병 진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섯째,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가 후기청소년정서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시도지사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업운영 및 예산운영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후기청소년지원관련 타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 이때,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특화된 전담인력을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청소년상담사 및 시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상담복지센터가 후기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초기, 중기청소년에 특화된 인력이므로 이들이 바로 후기청소년을 담당하도록 하기보다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분석과 연수, 교육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중고생들도 아동이지만 그들이 아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후기청소년들도 청소년이지만 본인들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할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상담센터, 군대의 병영생활전문관, 고용지원센터 등 연계자나 연계기관을 통한 의뢰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사업소개, 교육 등 유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안착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19세 미만 청소년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를 23세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YS-Net 체계안에 병무청 등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한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개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후기청소년 지원,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에 초점화된 지원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기청소년은 전체청소년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초중기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태다. 또한 그 지원이 주로 일자리지원,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에 주로 초점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도출한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후기청소년 개인의 건강한 성장 및 행복을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움으로써 후기청소년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의 역할, 서비스전달체계, 인적 구성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체계적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상담복지센터, 지자체가 각기 어떤 역할 및 기능을 해야 하는지, 상담복지센터 인력구성은 어떠한지 등 서비스전달체계 및 사업 운영 방안이 포함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 부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각 부처간 협력 및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 전문가 감수 등 모형개발과정에 다양한 현장자료를 참조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성 높은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후기청소년 인구가 많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전문가, 즉 대학생 상담복지센터 교수 및 상담자(4년제, 전문대, 폴리텍 대학), 군병영상담전문관, 고용안정센터 연구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모형을 현장전문가에게 감수 및 자문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모형의 현장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후기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단계 및 유형별 지원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기 위기청소년 지원 단계는 크게 예방, 발굴, 베이스캠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되며, 베이스캠프 단계는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를 목적으로 3단계 ‘나를 알Go’ (Assessment 단계), ‘적응하Go’ (Adjustment 단계), ‘개발하Go’ (Self-Empowerment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이 단계는 위기청소년의 유형(니트족, 취업자, 대학생, 군장병)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정서지원에 대한 단계별 및 유형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담복지센터는 물론 관련 기관에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에서 제시한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모형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모형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후기청소년 인구 및 특성이 다르고 관련 지원 현황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지역별 후기청소년의 특성, 기관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형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 와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공간을 진로지도나 상담의 장으로 활용하는 관련 프로그램의 실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ICT를 활용하는 모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장적합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형에 따라 시범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시범운영 통해 모형의 효과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 (2011). 일본의 후기청소년기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시설환경**, 9(4), 57-70.
- 강영배, 진영선 (2008).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9-43.
- 김기현 (2016).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청년(후기청소년) 정책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61-93.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자료집(2017.2). 54-68.
-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David L. Morgan 저,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역. 서울 : 군자출판사
- 김안나, 김성훈 (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 지원이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노경란, 고재성, 김선호, 김한준, 정명진, 정시원, 최동선 (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수민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 (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고나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 능력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a).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 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2, 214-251.
- 윤철경 외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끼꼬모리와 2차 분리-개별화. **연세상담코칭연구**, 4, 105-127.
- 이광호 (2003).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31-349.
- 이귀숙, 임선아, 류다정, 신정란 (2015). **취약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 개발: 학습플래너를 기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전귀연, 이성기 (2006). 부산지역 국민가족생활보장 수급가정 청소년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5, 27-51.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후기청소년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익중, 김대인, 오혜영, 이승연, 전종설(2017). **대학생과 자살: 상담에서 복지, 법률지원까지**. 서울: 박영스토리.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민영 (2008).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 지금 ‘등록금 투쟁중’. *교육개발*, 2008, 봄, 78-83.
- 통계청(2015). 2015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통계청 (2016). 2016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CYS-Net)운영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b).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 국제심포지엄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15). *Emerging Adulth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latter, H. (2007). *Coming of age. In Times of uncertainty*.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urrelmann, K. (2006).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9rd ed.)*. Weinheim: Juventa.
- Keniston, K. (1968). *Young radicals. Notes on admitted youth*. New York: Harvest.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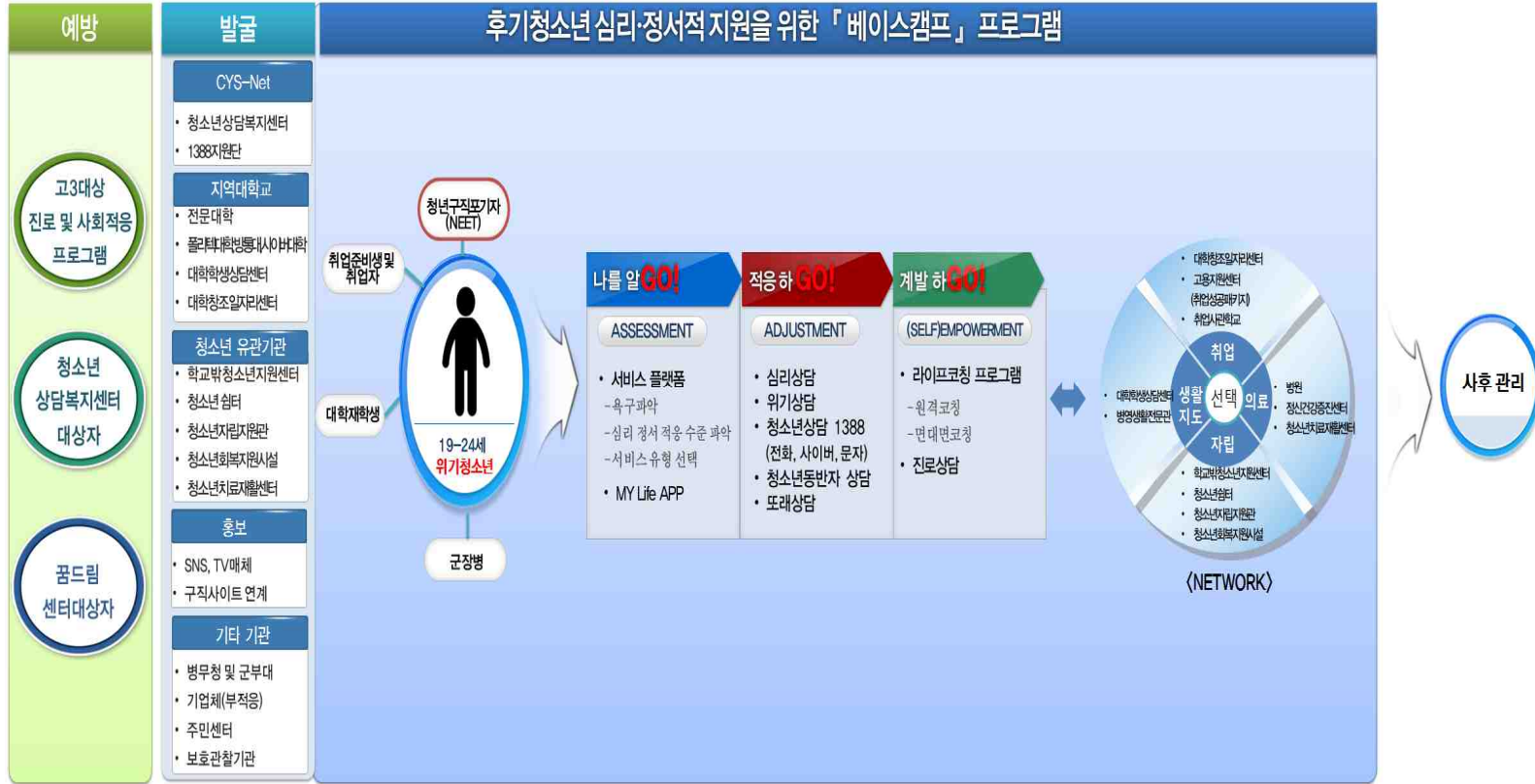
Oaks, CA: Sage.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 Paddock, G. (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159-176.

부 록

1.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2.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3.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4. 대학생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5. 군장병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7. 대학상담센터 종사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8.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부록 1]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모형



[부록 2] 니트족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부록 3]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부록 4] 대학생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부록 5] 군장병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인터뷰 질문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입 질문]

1. 귀하는 후기청소년(18세~24세)을 상담하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 후기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했나요?
 -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2. 귀하가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후기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 후기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후기청소년 대상 특성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얼마나 많은 후기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청소년들의 만족도, 평가는 긍정적이었나요?
 -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요 질문]

3.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CYS-Net의 주요 대상을 초중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있다면, 왜 필요한가요?
 - 확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까요?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확대 시, 후기청소년의 참여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가능할까요?
 - 후기청소년 대상 CYS-Net 서비스 확대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3-1.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의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에 대한 일반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3-2. 후기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내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했던 경험이 있나요? 주로 어떤 기관과 연계 하

였나요?

-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들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4.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해 후기청소년 유형별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기청소년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자립역량 극대화를 위해서 자립역량 임파워링을 위한 라이프코칭(생애 및 진로설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혹은 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요?(내용, 방식 등)
 - 후기청소년 유형을 취업준비생, 청년구직포기자(NEET), 경제적 취약계층, 고졸비진학 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더 추가해야 할 유형이 있을까요?
 - 위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며, 어떤 점에서 취약하다고 느끼시나요?
 - 자립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유형, 심리·정서적 지원 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취업준비생(졸업유예생, 구직활동자)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 청년구직포기자(NEET)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5. 대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학상담센터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학상담센터와 상담센터는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상담센터와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 대학상담센터와 연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 군장병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군장병을 상담하는 병영생활전문관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군장병을 위해 지역 군대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일 좋을까요?
- 7.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은 어떻게 양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좋을까요?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은 각 센터에 몇 명씩 배치되는 것이 좋을까요?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마무리 질문]

- 8.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터뷰 질문지(대학학생상담센터)

[도입 질문]

1. 귀하는 후기청소년(19세~24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후기청소년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나요?
 - 후기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신지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주요 질문]

2.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후기청소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나요?
 - 후기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3. 귀 기관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귀 기관에서 후기청소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 후기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CYS-Net의 주요 대상을 초중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있다면, 왜 필요한가요?
 - 확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까요?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확대 시, 후기청소년의 참여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 가능할까요?
 - 후기청소년 대상 CYS-Net 서비스 확대 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4-1.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의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에 대한 일반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4-2. 후기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내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들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4-3.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해 후기청소년 유형별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기청소년 유형을 취업준비생, 청년구직포기자(NEET), 경제적 취약계층, 고졸비진학 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더 추가해야 할 유형이 있을까요?
5. 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나요?
-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학(대학상담센터)과 상담복지센터는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대학상담센터)과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지역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 대학상담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연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6.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터뷰 질문지(유관기관)

[도입 질문]

1. 귀하는 후기청소년(19세~24세)과 관련하여 연구하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 후기청소년을 연구하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 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나 서비스를 지원하셨나요?

[주요 질문]

2.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후기청소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나요?
 - 후기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도움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도움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들의 사후관리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부처는 어디가 좋을까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 이들의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3. 귀 기관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귀 기관에서 후기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 후기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CYS-Net의 주요 대상을 초중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있다면, 왜 필요한가요?
 - 확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까요?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확대 시, 후기청소년의 참여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가능할까요?
 - 후기청소년 대상 CYS-Net 서비스 확대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5-1.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의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에 대한 일반상담 및 위기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내용, 방법 등)
- 5-2. 후기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내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들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5-3. 후기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해 후기청소년 유형별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기청소년 유형을 취업준비생, 청년구직포기자(NEET), 경제적 취약계층, 고졸비진학 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더 추가해야할 유형이 있을까요?
6. 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나요?
-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지역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지역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7. 지역상담복지센터와 군 병영생활전문관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지역상담복지센터와 군 병영생활전문관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지역상담복지센터와 지역 군대는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8. 지역 상담복지센터와 대학상담센터(대학)는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학상담센터(대학)와 상담복지센터는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상담센터(대학)와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질문]

9.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bstract

Study of Support for Post-Adolescents

- Focuses on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With extended school education in recent years, young people are taking longer to become adults. Many of them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in their late 20s or early 30s instead of early 20s, which gave rise to a new concept of post-adolescence, a period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hood. Post-adolescence is a period transitioning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where people establish their identities and prepare for life as an adult. In Korea, post-adolescents are exposed to severe stress as they try to become a grown-up due to social and structural problems they face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youth unemployment. They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cluding anxiety and depression due to stress of unemployment, negative future expectations, social prejudice, and identity crisis.

However, government supports for post-adolescents have been mostly focused on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with little support for their psychological health. Post-adolescents account for 40% of the total adolescent population but make up only 5% of the users of youth counseling centers, which shows that more active support is required for psychological health of post-adolesce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policy measures and a support model to help post-adolescents address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ssues so that they can successfully transition into adulthood.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we developed a model for post-adolescent support by collecting data and opin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focus-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at youth counseling center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post-adolescents (college counseling centers,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military counselors), 1st advisory meeting with field experts working at youth counseling centers, and 2nd advisory

mee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rough youth forums, and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involved (counselors in the field, service users).

As a result, the final model was developed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to post-adolescents as follows:

The model mainly consists of four stages which are prevention, discovery, support (Basecamp program), and follow-up services. The prevention stage focuses on minimizing and preventing potential problems of post-adolescents by providing career trainings for those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and building up database on the youth at risk. The discovery stage is where post-adolescents in need of help are identifi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CYS-Net, local colleges, and related organizations/agencies. The Basecamp program, which is the core stage, consists of three steps to help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planning: Self-assessment, Adjustment, and Self-empowerment. Participating adolescents first assess their desir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level during self-assessment. Then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 customized counseling services are provided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risis counseling to help adjustment. In the step for self-empowerment, adolescents can participate in life coaching programs such as a career planning course. Lastly, follow-up services are provided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In this model, we suggested providing customized programs based on the desire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articipant groups. In other words, we proposed a model for the Base camp program that tailors to the needs of each post-adolescent group (NEETs, job seekers, employees, college students, and those serving in the military).

To make thes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more effective, it is essential that policy support backs up the efforts through active role and cooperation of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dedicated personnel, and training opportunities. Since many counselors and professionals currently working at counseling centers specialize in early to middle adolescents, a thorough job analysis and trainings need to come first to build their expertise on post-adolescents, rather than letting them work with post-adolescents right away. Moreover, it is critical that post-adolescents themselves have awareness that they can use services and supports for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ctive PR efforts and the use of “the youth” instead of “adolescents” when expressing target recipients/participants can help encourage post-adolescents to use services of youth counseling centers. Finally, incentive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xpand counseling requests through related agencies such as college counseling centers, military counselors, and employment support centers.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presents a model that focuses on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for post-adolescents who have been neglected in policy supports. The suggestions this study makes for the supports would contribute to psychological health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as well as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thereby helping lower the social costs incurred by post-adolescent issues. Second, this study propose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asures for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from policy perspectives by looking at roles of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ervice distribution system, and staffing. Third, it developed a model with high applicability by listening to professionals in the field and consulting experts. Fourth, this study laid a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by presenting a model divided into steps and group types. The specific details of each step and tailored support for different types of groups can provide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counseling centers along with other related organizations when they develop programs to help adolescents at risk. We expect continuous follow-up studies to be conducted to put the model in this study into practice.